"동학군 주검 나주성 남문 밖 산처럼 쌓였다"

동학농민 학살 일본군 병사 '진중일기' 공개

동학농민운동(1894~1895) 당시 전남지역 농민군 학살에 참가한 일본군 병사의 진중(陳中)일지가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노력으로 발굴돼 일본에서 공개됐다.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84) 나라여자대 명예교수와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68) 홋카이도대 명예교수, 박맹수(58) 원광대 교수가 지난달말 일본에서 출간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 또 하나의 청일전쟁'(고분켄 刊)에는 일본군 후비(後備·후방 예비부대라는 의미)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2분대에 배속돼 있던 한 일본인 병사의 진중일지가 실렸다.

이 일지는 이노우에 명예교수가 지난해 이 병사의 후손으로부터 입수했다.

도쿠시마(德島)현 출신인 이 병사는 '동학당 토벌' 대대인 후비 19대대에 소집돼 조선으로 건너갔고, 1895년 1월 나주와 해남 등지에서 농민군 섬멸 작전에 참가했다.

이 병사는 일지에서 당시의 경험을 '우리 부대는 남서쪽으로 적(농민군)을 추적해 48명을 때려죽였고, 부상자 10명을 체포했다. 생포한 이들은 숙소로 돌아간 뒤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였다'거나 '오늘(1월31일) 동학 무리 잔당 7명을 붙잡아 (해남의) 성 밖에 있는 밭에 일렬로 세워 놓고 모리타 일등 군조(一等軍曹·일등상사)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이를 구경한 한인(韓人) 등은 매우 놀라는 모습이었다'라고 묘사했다.

또 '(나주성의) 남문 밖에 작은 산이 있었고 거기에 주검들이 쌓여 있었다…붙잡힌 자는 심문한 뒤 중죄인은 죽였다. 매일 12명 이상, 103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버린 주검이 680명에 달했다. 근방은 악취가 진동했고 땅은 하얗게 사람 기름으로 얼어붙었다…'고 묘사해 일본군의 공식 보고에 포함된 나주 처형자 수(230명)보다 훨씬 많은 이들을 학살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군이 학살한 동학 농민은 3만~5만명에 이른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인(약 2만명)이나 중국인 사망자(약 3만명)보다 많은 조선인들이 숨진 것이다.

한일 학자들이 약 120년 전의 동학농민운동 사료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청일전쟁은 청나라가 조선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등의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박 교수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근대화도 주변국 침략·학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 내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굴한 자료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아리랑' 공연 개막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22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전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한국전 정전기념식 첫 참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오전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리는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한다"면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열린 정전 53주년 기념식에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참석한 적은 있으나, 현직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쪽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특사단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백선엽 육군협회장, 권태오 육군 중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일 6차회담 '개성공단 해결' 마지막 기회

7·27, 한미군사훈련… 내달 실무회담 힘들어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25일 개최하는 6차 실무회담이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면한 한반도 정세와 각종 변수 등을 감안하면 남북이 6차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북측 주장 전승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을 "세계 최강의 미국과 싸워 이긴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 '전승절'에 해외 인사와 언론을 대거 초청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도 예정돼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에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휴가도 실무 회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8월에는 한미 양국의 연례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오는 8월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며 UFG가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8월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져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양식재해보험 가입 심사 재개

김영록의원 "1000여 어가 혜택"

가입 신청을 해놓고도 예산부족으로 가입심사가 중단된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심사가 재개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6월30일까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청약심사가 중단된 1004개 어가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청약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해양수산부가 해당 수협에 통보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양식재해보험 가입 대기 어가 중 자담보험료를 납부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청약심사를 재개, 이번 주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청약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청약승인을 받지 못한 1004개 어가는 청약 승인 후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는 전복 332개, 넙치 209개, 어류양식 114개 등 658개에 불과한 상태며 가입신청을 하고도 대기상태에 있는 어가는 전복 519개, 어류양식 291개, 넙치 180개, 굴 14개 등 1004개 어가에 달한다. 또 추가로 정부가 확보해야 할 양식재해보험 예산은 전복 29억원, 넙치 18억원, 어류양식 38억원 등 총 85억원이다.

김 의원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청약심사가 재개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청약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예산부족을 빌미로 한 청약 배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한승원 칼럼

그 남자의 아들이 하는 출판사

17년 전, 서울에 살고 있었다. 직장 없이 글만 쓰는 나는 책 욕심이 많았다. 아침에 대형서점에 들어가면 이 책, 저 책을 넘겨보다가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파서야 나왔다. 나오면서는 손에 들고 가기 버거울 만큼 많은 책을 사 가지고 나왔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주로 드나들었다. 그 앞 정류소에서 내 집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으므로.

어느 날 나는 서점 교보문고 안에 새로이 나타난 독립서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서가에는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라는 책들만 꽂혀 있었다. 예쁘고, 견고하고, 알찬 그 책의 면면들을 훑어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먼저 눈에 들어온 책은 〈르누아르, 빛과 색채의 조형화가〉였다. '나는 여자의 유방과 엉덩이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인상파 화가를 나는 환장하게 좋아했다.

마녀사냥의 시원을 말해주는 〈사탄과 약혼한 마녀〉에서 나는 서양 역사의 광기를 읽었고, 〈코끼리〉와 〈연금술〉에서는 신비한 세계를 접했고, 〈하늘의 신화와 별자리의 전설〉에서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놓은 우주의 전설을 보듬었다. 참으로 좋은 책이다, 하고 나는 연신 감탄을 했다.

얼마쯤 지나서 그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를 펴낸 출판사 사장이 전두환의 큰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출판인들이 외국에서 '디스커버리 총서'의 저작권을 과감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인 다음, 땅 짚고 헤엄치듯이 영업을 하는 그를 부러워한다고 들었다.

전두환의 큰아들, 그는 어디에서 난 돈으로 그 비싼 저작권을 사올 수 있었을까. 그의 출판업계에서의 군림은 엄청난 속도로 수직 상승 발전했다. 도서 유통센터, 을지서적 등을 사들였고, 만화정보주식회사 시공 주니어 따위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렸다. 거기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였고, 엄청나게 비싼 그림들을 몇 백점 사들여 미술관을 차리려 하고 있다.

그 화가의 그림들에는 풋풋한 생명력이 넘쳐흐른다. 그 책은 르누아르의 삶과 예술을 아주 짧으면서도 알차게 기술해놓고 있었고, 그의 훌륭한 작품들을 싣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골라놓고, 그 총서의 다른 책들을 속속들이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골랐다. 〈연금술사, 현자의 돌〉, 〈하늘의 신화와 별자리의 전설〉, 〈고갱, 고귀한 야만인〉, 〈코끼리, 세계의 기둥〉, 〈사탄과 약혼한 마녀〉를 한꺼번에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밤을 새워 르누아르를 읽었다. 한 그림 장사가, 늙은 르누아르가 죽기 두 달 전에 찾아갔을 때, 르누아르는 오른손에 붓을 묶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른손의 손가락들이 뻐드러져 붓을 잡을 수 없자, 르누아르는 아들에게 붓을 손에 붙인 다음 띠로 친친 동여 묶어 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는 그림 장사꾼에게 "손은 똥이야,"하고 말했다. 영혼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었다. 그림 장사꾼이 돌아갈 때 르누아르의 아들이 귀엣말을 했다. "이제야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그림에 집착을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

그 남자의 둘째 아들과 딸들도 몇 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5·18 광주의 비극을 연출하고 7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나라 돈을 빼돌린 그는 국가변란의 죄로 감옥살이를 했고, 한 절에서 연금되어 있었고, 2600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데 그는 겨우 삼분의 일만 갚고 나서 '나에게는 29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한 뒤, 자기를 따르는 좀비들과 더불어 뻔뻔스럽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육군사관학교에 천만원을 기부하고 사열을 받았다.

작은 도둑은 감옥살이를 하는데, 나라를 도둑질한 큰 도둑은 자손대대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산다는 속담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그 남자, 과연 이 정부는 다른 정부가 그에게서 못 받아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가 도둑질한 돈을 환수하는 것, 그것은 5·18 광주민주화 세력의 한풀이의 한 가닥인데.

〈소설가〉

삼희 공인중개사

부동산 빠른매매
(~ 50억가능)

급매매상담
(건물,상가,아파트,주택,기타)
법인소유부동산
지분부동산매매
미준공건물매매
경매진행중인물건
금융상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말소후 책임중개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062)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매 매★
* 영암 도포면 성산리(아산) 임야44,470㎡ 계획관리지역(과수원,전 개간적합)매매가4억원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접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1억원(병원적합)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 ㎡당 4천5백원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만원 (고시텔, 원룸신축적합)
* 화순읍 훈리 공간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 임대 2,3층 주택4곳임대 (융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3억7천만원

★임 대★
* 동구 운림동 증심사 버스종점 아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호프 198㎡ 룸완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룸6개(큼) 현성업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비권있음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접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없음 (식당적합,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융자액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례예식장, 투자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